

구리 살롬의 집 방문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



이번 성탄절에 많은 풍성한 잔치가 있었다. 모든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는 행사들이었다. 그중 하나가 성탄절 예배 후 구리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다.

기관선교팀 주관으로 소외되고 절망 속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구리 살롬의 집”을 찾은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고등부 위셋팀과 청각장애우 구역인 소망구역 식구들이 같이 참여

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많이 기다린 듯 반갑게 맞는다. 위셋팀의 울동 속에 그들은 흥에 겨워 같이 몸도 흔들고 소리도 내고 즐거워한다. 소망구역에서 수화 찬양도 보여주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서로 손을 만져주며 같은 동작으로 할 때, 수화를 가르쳐주고 배움을 받는 하나의 공동체를 느꼈다. 장애우들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지만 고달픔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절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 나의 꿈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랐다.

신형섭 기자

성탄절 칸타타

성탄의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기념 칸타타가 12월 19일(수) 대예배실에서 시온찬양대와 구리시립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열렸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성육신, 하늘과 별과 선물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차례대로 순서가 진행되었다. 많은 교우들은 시온성가대가 합창을 할 때와 이해정 집사가 거룩한 소프라노 독창을 할 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한다.

박원호 목사는 성탄 축하 칸타타를 통해 예수의 탄생 축하와 성탄회복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성령의 회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혹 여러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상처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최사라 기자



표준어

‘푹 고은’(X)
‘푹 곤’ (O)

요즘에 TV를 보면 전국의 맛집을 찾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흔히 실수하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어 요리를 소개하는 중에 ‘푹 고은 장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고기나 뼈 따위를 무르거나 진액이 빠지도록 끓는 물에 푹 삶다.”는 뜻의 낱말은 ‘고다’이고, 이의 관형형은 ‘고은’이 아니라 ‘곤’입니다. 따라서 ‘푹 곤 장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정애 기자

로 템 나 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겔15:2)

나무 중에 포도나무처럼 못 생긴 나무도 없다. 게다가 나무로서의 유용성도 거의 없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열매에 있다. 알알이 맺힌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다.

나의 삶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만 한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하였느냐이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 내 힘과 열정으로 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지 돌아보게 된다.

주님!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나의/신앙/이야기

주님의 본을 따르라는 가르침



지난 토요일, 30CUP은 성남의 [해맞이 공부방]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과 긴장감이 한 주 내내 저를 들쭉이게 했습니다.

‘키는 클까?’

성격이 어떨까? 1학년 여자아이는 분홍색을 좋아하겠지? 몸집이 크면 이 가방은 작겠는걸! 아이들

을 위한 선물을 사러 간 날, 이것저것 들었다 놓았다를 수차례 반복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수고로움을 온통 기쁨으로 바꾸워 주셨습니다.

토요일 3시 30분, 해맞이와 30CUP이 처음 얼굴을 마주한 시간, 아이들은 호기심과 웃음 가득이었는데 정작 우리 어른들은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놀면서 낯선 기운들이 조금씩 풀려졌습니다. 열 명 남짓씩 한 팀이 되어 샌드위치를 만들고, 사진을 올려붙여 신문물을 만들고, 공부방 한 쪽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며 모두가 새해 소망을 적어 달았습니다. 선물을 나눈 후 ‘해맞이’라는 글씨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초에 불이 하나씩 옮겨가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놓으신 마음의 초에도 불이 옮겨져 갔습니다. 둥그렇게 모인 자리, 주님께서

초보다도 더 환하고 더 크신 온기로 우리를 둘러싸셨습니다. 주님의 빛과 손길로 우리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우리의 온 맘을 비추시며 어루만지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정작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는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을 몇 갑절로 채워나가셨고, 우리 안에 ‘함께 나눔’의 소원을 심으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풍성한 만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손길이 닿지 않는 저에게 늘 나눔의 손길을 베푸셨던 한 은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오래 전 그분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신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혜영(8-1)

|오늘의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3:13-14

통 권 _ 제 221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12월 30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사진: 정원영 안수집사

태안반도 봉사

오직 주님만이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과 태안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길래 아들을 꼬셔서 새벽6시 좀 넘어 깨웠더니 힘들어하고 가기 싫어하더군요. 어르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칭찬도 해가며 겨우 끌고 갔습니다. 성탄절 저녁에는 괜히 신청했나 생각도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바위들이 검은 기름때로 덮혀있는 것을 보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2-3년 전 초겨울 천리포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해수욕장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한 할머니가 석화(돌에 붙은 굴)를 따고 계시더군요. 우리 가족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니 따서 맛을 보라고 주시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연세를 물어보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신다 했더니

‘다 예수 믿어서 그런 거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대절환 버스가 가는 곳이 바로 그 해수욕장을 지나서 옆 마을이었습니다. 바위와 돌 위에 검은 끈적한 기름덩어리를 닦으며 그 할머니도 얼마나 낙담하고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닦다보니 좀 희어지는 거 같기도 하면서 새벽에 가기 힘들어 하던 아들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돌들을 닦았습니다. 점심은 사랑의교회에

서 온 봉사팀들이 준비해주신 쌀밥과 김치 그리고 국이었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 후 다시 시작된 노동,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닦아도, 또 닦아도 비슷한 것 같은 바위들... 꼭 나의 죄를 보는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기 어려운 돌과 같다는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안되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깨달음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우리의 잘못으로 오염된 그 곳도 주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계실지도 모를 그때 그 할머니..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셨던 그 할머니..태안의 모든 분들과 그 할머니께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끼시길 기도합니다.

김광일 집사(420)



2008년 어와나클럽
신입단원 모집합니다.

대상/ 2008년 기준 취학 전 1년~6학년 되는 아동
클럽활동시간/ 매주토요일3시~5시
신청방법/ 1층사무실접수 신청서제출

*입단신청서 마감은 12월31일이며 최종입단자 발표는 1월말 개별통보입니다.

청년부 태안반도 봉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발 벗고 나설 수 있기를...



12월 19일은 대선일과 동시에 청년공동체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얼마 전 해안유출사고가 일어난 태안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새벽에 투표를 마치고 모처럼의 휴가도 아낌없이 봉사활동에 투자하고자 결심한 청년들이 교회 로비에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출발시간에는 박원호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주셨다.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과 기도를 받고 청년들은 45인승 버스 2대에 남기는 자리 거의 없이 사람을 태우고 태안을 향해 떠났다. 3시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여행 끝에 조금씩 태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뉴스에 나오는 위성사진의 모습처럼 바다는 해안에서 육지로 울수록 검은 기름띠가 보였고 더 가까이 가면서 검은 기름에 덮인 돌들을 볼 수 있었다. 한국교회봉사단에서 미리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의 청년부도 있었다. 거기서 지휘담당을 맡고 있는 형제분의 지시에 따라 우비, 장화, 장갑,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주님의교회 청년공동체는 두 팀으로 나뉘어서 형제들은 기름을 빨아들이는 작업을 맡고, 자매들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돌에서 기름을 닦아내는 작업을 맡았다. 모두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면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하나님께 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약 4시간동안 모두다 열심히 마음과 힘을 다해 작업했지만 모두들 그다지 성과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대학생들은 남아서 다음날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태안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바다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돌에는 찢뜩뜩하고 검은 액체들이 끼어있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발 벗고 나서서 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재환(청년부)

※지난 16일 발행된 신문의 호수를 119호에서 220호로 정정합니다.

2007 한해를 돌아보며...

주님! 올 한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새 역사를 창조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경험을...”



송구영신하며 감사하게 보냈던 작년 말이 생각납니다. 좋은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각오를 다졌던 올해를 며칠 남겨두고 보니 그저 아쉬운 생각뿐입니다. 차량부에서 봉사하면서 때때로 힘들 때도, 시험받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미소와 말 한마디에 피로는 큰 은혜로 바뀌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저 스스로가 가장 큰 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차량부의 길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방향 등을 모두 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최재규 집사(차량안내봉사부)

“성경통독, 출애굽기의 위기를 넘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처음 한 번 읽을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구역식구들과 2006년 7월 구역모임이 방학함과 동시에 성경읽기를 시작하였다. 교재는 2000년에 교회에서 발행한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고 그 책에서 정해놓은 하루치 분량을 매일 매일 읽기로 하였다. 목상내용에 대한 질문을 옆두에 두고 읽었다. 혹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읽는데 목표를 두기로 했다. 첫 번째 위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그대로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는 부분이였다. 길이의 단위원 ‘규빗’만 보아도 골치가 아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인내심을 가져야 했다. 레위기 민수기 또한 더욱 더 지루함을 참아내야 했다. 뚝딱까지 왔을 때 해가 바뀌면서 구역이 나누어지는 바람에 잠시 중단되었다. 금년 7월 모여 사무엘기부터 다시 성경읽기가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그동안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적용했던 말씀을 나누며 한번 끝까지 읽는 데 목표를 두었던 모임이 자연스럽게 QT모임으로 변화되어 갔다. 지금은 에스겔서를 읽고 있고 구약통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경에는 끝까지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이 많이 쓰여 있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작은 수고를 나누며 함께 해온 우리 모임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을 발견하는 축복을 주셨다. 올 해를 보내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해를 거듭 할수록 말씀과 함께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김경희 집사(5-15구역)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봉사의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교사 모임 장소에 들어서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교회, 예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떨어져 가던 무렵 부족한 저를 ‘중등1부’라는 곳으로 인도해주셨지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여러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이 새롭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들...주님이 이렇게 곁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춘기라 도무지 소통하려 들지 않는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좋았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모두 주님의 크신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그 길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그리고 이런 다짐과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잡으며 2008년에도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주님께서 낮게 우리에게 오셨듯이 낮은 마음으로 청소년 사역을 위해 열심히 걸어가렵니다.

김재미(중등부교사)

“2007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얼마 전 책상용 달력을 받고 매년 그러하듯이 주요한 날을 잊어버려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1월부터 한 장씩 달력을 넘기며 12월까지 표시를 하였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나니 또 2008년 한 해를 살아 버린 것 같은 묘한 아쉬움이 살며시 다가온다. 이렇게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2008년도 예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와 유사한 한 해를 더 갖는 것이 생물학적인 삶의 연장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얼마 전 시드니를 가기 위해 탑승을 기다리며 단상에 잠긴 적이 있었다. 길게 줄이 늘어선 것을 보니 탑승이 시작될 모양이다. 제한된 시간에 머물고 또 때가 되면 떠나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서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오래 한 곳에 머물려고 애착하면 마음이 아플 것이다. 영원히 머물 곳을 향해 통과하는 경유지... 그러나 경유

지에 머무는 동안 나와 관련된 것들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는 관계를 감사히 채워야 할 것이다. 머무르고 또 가는 일을 연습하며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시간, 공간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무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몫임을 가슴에 말씀하고 계셨다. 여행객의 경유지처럼 우리의 달력은 표시했던 몇 가지 기념일을 지나며 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선사하며 기뻐하게도 하고, 고통 받게도 하며 잠깐씩 머물다가 또 다른 경유지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그 것도 속도 있게 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관계는 어제와 다르며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무르며 사는 것이니 어찌 은혜의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고비 고비 마다 무수히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에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날 그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신비할 따름 아닌가? 명백히 고난에 대해 우리는 무력했고 아파했던 기억밖에 없진 않나?

고등부를 통해 훈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사역하며 성장케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에서 머물고 함께 고민하며 입시라는 격동의 시기를 은혜로 견디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변화는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의 애씀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살펴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김낙균 집사(고등부 교사)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곧 중학생이 될 박선우입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을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깝게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만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새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안부를 전화와 문자로 매주 챙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이교회에 다녔었지만, 지금까지 선생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교회에 인도해주신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19개월 동안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성에 대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을 절실히 믿어 이 세상의 하나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교회에 즐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들
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박선우 올림 2006.12.23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지나갑니다.
지난 한해 의료선교팀으로 봉사하며 느
낀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
어주신 은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
름에는 장년부 4팀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단기선교
팀들이 다양한 선교활동을 하였고, 선교중보기도모
임과 선교학교를 통해 교우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과
저변확대가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선교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선교정책과 객관적인 체계를 세우
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새터민, 곧
탈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더욱 전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올해 한국의 선교가 아프간
피랍사태로 인해 위축 되어 있습니다만 이 환경을
뚫고 우리교회가 선교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변춘석 집사(의료선교부)

“내려놓기, 헌신, 무조건 믿기, 신뢰”



2007.12.25 22:14

내려놓기. 헌신무조건 믿기. 신뢰
어려워. 헌신, 신뢰 고작 4음절의 2개
의 단어가

내 머릿속에 엉켜서 복잡하게 만든다.

내려 놓을것은 너무도 많은데 너무나도 세상적인
나라서.. 무조건 믿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너무나도 이
기적인 나라서..

그래도 주님.

주님께만 헌신하고 무조건 신뢰합니다. 가끔 아니
자주 너무도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당신의 어리석은
자녀를 용서하세요.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이가인(청년부)

“한창 사춘기에 접어 든 소년부 친구들-”



그 친구들을 섬기는 소년부 선생님들
의 노고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진다.

2007년, 한 해 동안 소년부 교사들은
신상욱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
동을 하였다.

그 활동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을 닮아 가

고자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주님의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한다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
어 안는 것이다. 그 십자가는 고난이 있지만,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고 비전을 심어 준다. 소년부 교사들
은, 친구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
구가 되길 기꺼이 소망한다. 말씀을 사모하며 소년
부 친구들과 공과 공부를 할 때, 교사들은 제일 행복
하다. 새해에는 어린 새싹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더욱 열심을 다해 낮은 자세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 드린다.

"주님! 교사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
년부 친구들을 섬기면서 더욱 영적 성장을 돕는 도
구가 되게 하옵소서!"

최미옥 집사(소년부 교사)

“어와나...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와나 클럽 T&T를 졸업하며....어와
나를 알게 된 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약 제가 3학년 때부터
T&T를 했다면 4년이라는 넉넉한 시간
속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쉽게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돌
이켜보면 짧은 시간동안 T&T 핸드북 네 권을 모두
마치느라 참 분주하고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2학기
엔 주일에도 선생님과 약속하여 핸드북 점검을 받았
습니다.

몇몇 동생들이 야비하다!!라고 해서 조금 찢리기
도 했지만, 그것은 6학년인 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떤 말씀은 너무 길
고 잘 외워지지 않아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었고,
암송한 말씀들이 지금 모두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
다. 하지만 1년간 씨름하며 외웠던 그 말씀들이 앞
으로 저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에는 중학교 과정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T&T를 졸업한 뒤에도 김현미
선생님께서 중학교 과정의 책을 구해다 주신다고 하
셨기에 저는 왠지 안심입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어
와나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어와나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어와나의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T&T의 핸드북을 네 권 모두 마치기까지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김현
미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 정지영 선생님, 구현숙
선생님 등 선생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와 사랑을 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와나를 통해 많은 동생들

과 함께하며 친해지게 된 것도 정말 행복한 일입니
다. 저는 어와나 클럽을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
고 생각합니다. 매주 있었던 클럽 모임 때의 즐거웠
던 게임 시간, 찬양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 시간, 핸
드북 시간, 또 어와나 게임즈,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
대회 등 모두모두 잊지 못할 것 입니다. 이러한 소중
한 경험과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하라(소년부)

“차를 마시면서 기쁨의 대화가 이어지길”

우리 같은 죄인을 매 주일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일에 커피봉사로 참여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
다. 지난 일 년 동안 봉사부 전원이 열심을 다하고,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커피를 맛있게 마셔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합
니다. 커피가 너무 달다 쓰다 싱겁다고 질책 아닌 격
려로 일침을 주신 성도님께도, 부엌에서 컵을 세척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을 깊
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른 새벽마다 나와 차를 봉사 할 수 있도록 테이블
과 컵을 셋팅해 주셨던 두 분 집사님과 마지막까지
남아 컵을 소독 해 주셨던 세 분 집사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그리고 보다 따뜻한 차와 위생적인 서비스
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자재와 아이디어를 제
공 해 주신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일
평균 4~5천 잔 정도의 차를 원활하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요원들을 격려 해 주신 장로
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교인들 간에 주고
받는 덕담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여 우리의 자그마
한 수고가 큰 은혜가 되어 우리의 피곤을 가시게 한
답니다. 한편, 보다 더 정성어리고 넉넉한 준비가 부
족했던 점도 반성해보면서 성도님들의 깊은 아량으
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올 한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새 역사를 창조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와 감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 차를 마시면서
기쁨의 대화가 계속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박현옥 집사(봉사부)

